임원회비 축소·직제 규정 조정

익산시체육회 비대위원회, 정상화 개선방안 발표

익산시 체육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체육회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익산시 체육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오학수)는 "익산시 체육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결실을 맺고 있다"고 18일 오전 11시경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체육회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 기자회견을 밝혔다.

작년 익산시 체육회는 시의회 사무감사 및 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해 많은 지적을 받고 2019년 본 예산에서 체육회 운영비 3억5천만원 적액이 삭감된 바가 있다. 각종 비리의혹과 부실운영이 제기된 전북 익산체육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체육회 정상화를 위한 쇄신안을 마련했다.

이에 이날 오학수 위원장은 "익산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3명을 체육회로 파견해 지난 1월 비대위가 착수된 지금까지 시측에 각종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먼저 비대위는 이날 회비규정은 임원회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부회장 200만원과 이사 100만원인 임원회비를 부회장 100만원, 이사 50만원으로 축소하고, 인원회비 미납 시 사직서 제출을 의무화해 임원회비 미납에 따른 논란을 정리하도록 했다.

이어 위임전결 규정에서는 체육회장이 책임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종전 건당 1억 이상시 회장 결제 사항을 2천만원 이상으로 개정하고 도민체전, 어린이풀장, 종목체전 인준 등의 주요사업에 대한 회장 결제를 명시했다.

또한, 직제 규정에선 사무국장 인건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5급 급여인 사무국장을 6급으로 개정하고, 종전 6급 과장을 7급 팀장으로 조정토록 했다.

특히, 사무국운영 규정에서는 정원이 30명인 도체육회 규정을 정원이 4명인 시체육회에 그대로 적용해 문제가 돼 기존 초임금 산정시 상한선이 없는 경력인정을 '군경력을 포함해 최대 10년'으로 조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보직의 부여 및 해제가 사무국장이 아닌 회장 권한임을 명시하고 음주, 성폭력 등 선거법위반 및 벌금형 등 징계감경 불가내용을 신설했다.

덧붙여 비대위는 승진시험 규정을 폐지하고 공무원 근무성적평정표를 도입했으며 회원단체 가입 및 탈퇴 규정에선 정회원, 준회원, 인정단체의 가업요건을 시체육회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승격과 강등 내용을 신설하도록 개정안을 제시했다.

게다가 비대위는 전국대회 출전지원비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체육회 전기 및 통신 차단방지를 위한 이사회비 사전전용 검토 후 요청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재배치 요구하고 체육회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하루속히 체육회가 정상화돼 직원들이 복직하고 새로운 사무국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며 "체육회 직원 모집시 정년이 보장된 정식직원을 모집해서 대회유치, 전지훈련 및 체육행사 지원 등을 책임있게 수행을 한다면 예전에 비리 및 부실관리 등이 이루어지 않는 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시민의 건강한 복지 책임져요'

원광종합 등 3개 사회복지관 추진 사업 다채

익산시가 올해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원광, 부송, 동산사회복지관 등 3곳은 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어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진 주민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시설이다. 이들 3곳에 올해 2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들은 6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3곳의 복지 현장을 소개한다.

먼저, 원광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부터 어르신, 장애인까지 여러 계층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우선 다양한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생활만족도 증진을 위해 '한마음 모아' 라는 주제의 음악체험활동을 마련했다. 난타교실과 발표회, 집단응집력 강화 프로그램 등이 복지관 프로그램실에서 4월부터 12월까지 총 30회 진행된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매주 금요일마다 추진되는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가사지원교육과 요리활동 쿠킹 클래스, 올바른 성 인식과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가상화폐를 통한 경제교육과 함께 자기표현 향상을 위한 난타, 통합예술치료, 사회성을 위한 가족동반 문화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알차게 진행된다.

부송종합사회복지관은 올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송주공1차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가정방문을 실시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2014년 같은 아파트 거주주민 1,60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후 5년 만이다.

조사결과는 복지관의 사회복지사업 개발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며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세대는 가구 특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 위기가정지원 및 후원물품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동산사회복지관은 매주 금, 토요일에 '건강한 녀석들'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재)데상트스포츠재단,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도내에서 동산사회복지관이 유일하게 선정돼 지역사회 뿐 아니라 가정, 학교에서도 많은 호응과 관심을 받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여름철 호우 대비 원예농가 지원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시설원예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일해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입해 수중모터와 수중모터·수통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지역 시설원예 농가로 지원 단가는 정격출력 3마력이상을 기준으로 수중모터는 1대당 50만원, 수중모터·수통은 100만원이다.

신청은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산업계에 하면 된다.

산업담당이 없는 동은 익산시 농촌활력과 스마트농업계에 신청하면 된다.

김용수 농촌활력과장은 "날로 더해가는 기상재해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민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익산시, 가공용 벼 생산단지 확대 조성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기업들의 맞춤형 쌀 생산을 위한 가공용 벼 생산단지 확대 조성한다.

시는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18일부터 2일간 농업인교육관 대강당에서 740여 명의 가공용 벼 생산단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가공용 벼의 종자 소독요령, 육묘, 모내기, 병해충 방제 등 매뉴얼에 따른 재배요령 교육을 통해 생산 농가들의 기업 맞춤형 고품질 원료곡 생산에 도움이 될 방안을 제시한다.

익산시는 올해 기업에서 요구하는 가공용 원료곡 1만 2000톤 생산을 목표로 지난해보다 72ha 증가한 1,372ha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과 지역농협 등이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물량 증대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익산시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가공용 벼 품종을 보급해 철저한 생산 매뉴얼에 따라 재배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수확 전에는 행정, 단지대표, 민간심사위원, 경영체(RPC) 관계자로 구성된 포장심사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간편식 요리 시장 증가 추세에 발 빠르게 대처해 익산 쌀 소비촉진에 나서고 있다"며 "수시 현장지도로 고품질의 원료곡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 군산사랑 SNS 활동 시민 서포터즈 모집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시가 SNS 등을 통해 군산사랑 시민운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등을 홍보할 '2019 군산사랑 SNS 시민 서포터즈'를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평소 군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고,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다.

시민 서포터즈는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개인 블로그와 SNS에 지역상품과 지역업체 홍보, 골목상권(전통시장) 애용 운동 등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취재활동에 적극 나서게 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달 3일 시 홈페이지에 합격자 명단이 게시되며, 선발된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오는 5월 중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포터즈에게는 매월 콘텐츠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며, 활동기간 중 우수한 활동 실적을 보인 서포터즈에게는 연말에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시민 서포터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오는 29일까지 시 홈페이지(www.gunsan.go.kr)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점검

군산시는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관내 신고된 공장등록 제조업 및 식품제조·가공업, 자동차 정비업소 등이며, 시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설치 여부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기타 환경 관련법 준수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무허가·미신고로 운영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사항에 따라 사법처리와 폐쇄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찾아가는 건설기계 품질점검

더불어 쾌적한 안전도시를 조성해 가는 군산시가 18일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와 함께 '찾아가는 건설기계 품질점검 현장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 서비스는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군산출장소의 정기검차 차량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 분석으로 연료의 안전성을 검증했으며, 불법연료 유통의 폐해사례를 통한 교육 및 홍보활동도 함께 추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